

부동산신탁산업 2025년 3분기 잠정실적 Review 및 모니터링 계획

- 신탁계정대 투입 및 대손부담으로 적자 지속. 회수기반 재무구조 개선 필요

2025.12.03

금융1실
오지민 수석연구원
02-787-2228
jimin.oh@kisrating.com

금융1실
위지원 실장
02-787-2279
geewon.wee@kisrating.com

Executive Summary

한국신용평가(이하 '당사')는 14개 부동산신탁사 중 6개 부동산신탁사(교보, 대토신, 대신, 코람코, 한토신, 한투. 이하 'KIS Coverage')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비우호적인 부동산 시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 2025년 3분기 수익성

14개 부동산신탁사는 2025년 3분기 589억원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대토신, 무궁화, 신영, 우리, 코리아, 한토신, 한투 7개사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개발신탁(이하 '책준형 개발신탁') 사업장과 차입형 사업장의 대손 인식이 이어지고 있어, 실적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3분기까지 책준형 개발신탁의 총당금 적립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짐에 따라 책준형 개발신탁 관련 대규모 대손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대손과 별개로 소송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차입형 사업장의 경우 분양성과가 연초 전망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준공후 미분양 사업장의 회수지연을 고려할 때 대손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토지신탁보수 감소세가 이어지며 신탁사의 수익창출원 약화가 지속되는 점 또한 실적저하의 주요 요인이다. 2025년 3분기 토지신탁보수는 1,248억원으로 전년 동기(2024년 2분기) 1,535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일부 회사의 리츠 관련 수익이 실적 하락폭을 완화하고 있으나, 토지신탁의 신규 수주 감소 추이를 고려 할 때, 신탁사의 수익창출력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 2025년 9월 말 재무안정성

2025년 3분기 신탁계정대 증가폭은 2024년 분기평균 약 7천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약 4천억원 증가하면서 부동산신탁 산업의 신탁계정대 합산 잔액이 8.8조원까지 상승하였다. 차입형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일부 책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탁계정대 투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책준형 사업장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잠재적인 신탁계정대 투입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의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어 2025년 말까지는 신탁계정대 투입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대손부담이 이어지면서 산업 전체의 자본규모는 직전 분기 대비 674억원 감소했다.

▣ 주요 모니터링 계획

위축된 수주 현황, 규제 강화로 인한 영업위축 가능성, 신탁계정대 및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을 고려할 때, 부동산신탁산업의 사업 및 재무여건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KIS Coverage 부동산신탁사 신용평가 과정에서 중점 모니터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력 확보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방안에 비추어 볼 때, 재무안정성 관리측면 뿐만 아니라 영업기반 확보 측면에서도 자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건전성 지표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도 하방압력 완화를 위한 계열의 재무적 지원이 신용도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사업장 정리현황과 리스크관리 수준이다. 신용평가 과정에서 기발생한 재무부담 수준만이 아니라 KIS Stress Test를 통해 잠재적인 재무부담 수준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신탁계정대 회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시행사와의 협의 및 내부적 손실 결의를 통한 할인분양 등 구체적인 정리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 여부이다. 산업환경, 수주실적 및 경쟁현황에 비추어 볼 때, 수익창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업체별 사업포트폴리오 구성과 수주 역량에 따라 실적대응력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Contents

1. 부동산신탁 2025년 3분기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Review.....	2
2. 회사별 현황 및 모니터링 계획.....	3
Appendix.....	6

1. 부동산신탁 2025년 3분기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산업은 2025년 3분기 589억원의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순손실을 인식한 신탁사는 14개 부동산신탁사 중 7개사(대토신, 무궁화, 신영, 우리, 코리아, 한토신, 한투)이다. 책준형 개발신탁 사업장과 차입형 사업장의 대손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대규모 대손 인식에 따라 분기별 순손실 규모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토지신탁보수 감소세가 이어지며 신탁사의 영업수익 하락세도 지속되었다. 2025년 3분기 토지신탁보수는 1,248억원으로 전년 동기(2024년 3분기) 1,535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토지신탁 시장이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축소된 반면, 신탁사 수는 같은 기간 11개사에서 14개사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일부 회사의 리츠 관련 수익이나 토지신탁보수 중 담보신탁의 일시적 증가가 실적 하락 폭을 완화하고 있으나, 토지신탁의 신규 수주 감소 추이를 고려 할 때, 신탁사의 수익창출력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분기 손익계산서(요약)

(단위: 억원)

구분	24.03	24.06	24.09	24.12	25.03	25.06	25.09
영업수익	3,859	3,769	4,465	4,403	3,703	4,451	4,172
영업비용	4,072	6,076	3,888	7,505	3,452	5,646	4,768
영업손익	-213	-2,307	577	-3,102	251	-1,195	-596
분기순손익	-265	-2,203	190	-4,055	72	-1,343	-589
주요 계정							
신탁보수	2,096	1,983	1,910	1,935	1,479	1,510	1,562
토지신탁보수	1,836	1,655	1,535	1,443	1,225	1,157	1,248
이자수익	895	932	990	1,190	1,110	1,077	1,115
이자비용	-296	-364	-436	-475	-513	-503	-494
대손비용	-2,107	-4,227	-1,824	-3,527	-1,510	-3,392	-2,324
판매관리비	-1,403	-1,340	-1,457	-1,518	-1,253	-1,311	-1,259

주1) 14개 부동산신탁사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주2) 대손비용: 대출채권관련이익(손실)+충당금전입액(환입액)+기타대손상각비(순액) 기준(실제 비용성격이 대손비용 또는 충당부채 전입 항목에 해당하나, 해당 계정을 기타영업비용(기타) 등 다른 계정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조정하지 않음[미반영])

2025년 3분기 신탁계정대 증가폭이 2024년 분기평균 약 7천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약 4천억원 증가하면서 부동산신탁 산업의 신탁계정대 합산 잔액은 8.8조원까지 상승하였다. 차입형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일부 책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탁계정대 투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책준형 사업장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잠재적인 신탁계정대 투입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나,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의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어 2025년 말까지는 책준형 신탁계정대 투입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손부담이 이어지면서 산업 전체의 자본규모는 직전 분기 대비 674억원 감소했다.

재무상태표 주요계정

(단위: 억원)

구분	24.03	24.06	24.09	24.12	25.03	25.06	25.09
신탁계정대	53,861	60,604	66,930	77,017	78,548	84,528	88,355
(계정대 대손충당금)	10,196	13,241	15,595	17,950	19,797	22,007	24,527
충당부채	2,152	3,046	2,266	3,702	3,226	3,654	2,917
차입부채	25,162	29,049	31,635	36,828	37,155	37,888	41,795
자기자본	56,098	56,432	58,072	58,154	57,765	56,282	55,608
〈QoQ 증감〉							
신탁계정대	5,310	6,742	6,327	10,086	1,531	5,980	3,827
(계정대 대손충당금)	1,488	3,045	2,354	2,355	1,847	2,210	2,520
충당부채	426	895	-780	1,436	-477	428	-737
차입부채	5,893	3,887	2,586	5,193	327	733	3,907
자기자본	1,065	335	1,640	81	-388	-1,483	-674

주1) 14개 부동산신탁사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2. 회사별 현황 및 모니터링 계획

2025년 3분기 순손실을 기록한 부동산신탁사는 14개사 중 7개사(대토신, 무궁화, 신영, 우리, 코리아, 한토신, 한투)로, 2분기 5개사 대비 증가하였다. 2025년 3분기 대손 부담이 크게 발생한 업체의 경우 책준형 개발신탁은 금융감독원의 충당금 산출 적정성 검토 결과 대규모 상각비를 반영한 영향이 커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도 외부평가 권고를 받은 일부 업체는 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3분기에 자체적으로 분양률 저조 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재분류 및 대손인식을 확대하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책준형 개발신탁을 적극적으로 수주하였던 은행계 신탁사들의 충당금 적립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짐에 따라, 분기별 순손실 변동의 주요 요인이었던 대규모 책준형 개발신탁 관련 대손인식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책준 미이행 손해배상 리스크는 대손부담과 별도로 존재하며, 항소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장기화 될 전망이다. 차입형 사업장의 대손부담의 경우 2025년의 분양성과가 연초 전망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당초 예상 수준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사업장의 회수 지연을 고려 할 때 대손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회사별 분기 순손익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3.03	23.06	23.09	23.12	24.03	24.06	24.09	24.12	25.03	25.06	25.09
교보자산신탁	31	12	-75	-263	-264	-463	-650	-1,032	-499	-246	169
대신자산신탁	55	0	49	29	16	12	3	-222	48	6	44
대한토지신탁	22	45	74	8	65	-22	69	148	83	88	-127
무궁화신탁	42	-26	48	-125	-58	2	-109	-1,033	-60	-447	-146
신영부동산신탁	32	40	40	40	4	31	26	24	-8	13	-6
신한자산신탁	178	206	180	-29	-220	-1,531	-34	-1,301	54	68	72
우리자산신탁	177	207	146	-207	80	11	84	-156	-138	-762	-910
케이비부동산신탁	188	166	139	-1,333	-469	-589	196	-272	86	-305	40
코람코자산신탁	110	-243	143	21	50	5	379	-74	86	90	69
코리아신탁	73	56	33	9	14	11	-45	-173	-28	-36	-82
하나자산신탁	221	250	185	153	181	183	205	20	176	134	59
한국자산신탁	398	117	113	161	151	41	-61	34	69	14	255
한국토지신탁	76	89	9	79	121	129	33	-4	182	39	-13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5	20	77	50	64	-23	93	-14	22	0	-13
신탁산업 합산	1,668	938	1,159	-1,407	-265	-2,203	190	-4,055	72	-1,343	-589

주) 순손실은 음영 표시 ■

자료: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2025년 9월 말 기준 14개 부동산신탁사 중 6개사(교보, 대토신, 무궁화, 신한, 케이비, 한투)의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사(대토신, 무궁화, 신한, 케이비, 한투)는 부채비율이 150%를 상회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구분	회사별 부채비율								(단위: %)
	23.12	24.03	24.06	24.09	24.12	25.03	25.06	25.09	
교보자산신탁	20.5	38.3	48.4	76.5	89.4	84.1	65.4	102.3	
대신자산신탁	48.6	65.5	65.8	79.6	149.0	138.3	92.4	97.2	
대한토지신탁	95.7	116.8	132.3	146.8	142.7	134.3	132.8	150.8	
무궁화신탁	80.9	97.0	78.5	94.7	195.8	193.8	319.4	390.7	
신영부동산신탁	17.4	17.7	15.6	14.6	14.5	19.2	21.7	22.9	
신한자산신탁	22.6	54.5	104.5	139.5	155.2	148.5	159.8	159.0	
우리자산신탁	30.9	16.1	12.2	9.5	8.6	7.9	13.4	15.7	
케이비부동산신탁	200.4	293.5	227.9	109.0	129.3	116.8	152.9	155.5	
코람코자산신탁	36.3	40.9	40.7	46.1	41.7	32.0	27.8	31.8	
코리아신탁	29.6	22.7	31.7	34.7	48.5	73.2	78.7	80.6	
하나자산신탁	12.6	18.9	13.8	21.6	31.6	34.7	40.5	40.7	
한국자산신탁	21.5	33.0	38.5	39.8	47.6	64.2	63.2	48.5	
한국토지신탁	84.2	88.6	85.5	82.5	89.0	86.6	81.8	86.2	
한국투자부동산신탁	47.7	63.2	97.4	120.5	167.6	165.9	187.2	243.9	
신탁산업 합산	51.8	62.8	68.2	69.3	81.4	81.3	84.3	91.3	

주) 부채비율 100% 초과 시 음영 표시 ■

자료: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당사는 14개 부동산신탁사 중 5개 부동산신탁사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교보, 대토신, 코람코, 한토신, 한투). KIS Coverage 부동산신탁사의 자본력 수준, 사업장 정리현황과 리스크관리 수준, 수주실적,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 여부에 주목할 것이다.

위축된 수주 현황, 규제 강화로 인한 영업위축 가능성, 신탁계정대 및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을 고려할 때, 부동산신탁산업의 사업 및 재무전망은 여전히 비우호적이다.

- ① **수주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수익창출력 약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책준확약 관토신 신규수주가 급감하며, 개발신탁 시장규모는 과거 수준으로 축소된 반면 경쟁업체 수는 2배로 증가한 상황이다. 신탁계정대 증가에 따라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분양성과가 저조한 사업장에 신탁계정대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손가능성까지 고려한 수익의 질은 저하된 것으로 판단한다.
- ②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강화된 규제가 신탁사 개발신탁 영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작은 자본으로 책준형 개발신탁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던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외형확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 ③ **재무안정성지표 관리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규 수주가 감소한 점, 기수주 사업장 중 상당수가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계정대 신규 투입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부진한 분양성과 지속에 따른 기투입 신탁계정대의 회수 지연 및 대손부담을 고려할 때 재무안정성 관리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책준형 개발신탁 관련 소송위험이 상존하는 점 또한 재무안정성 측면의 부담요소이다.

KIS Coverage 부동산신탁사 신용평가 과정에서의 중점 모니터링 요인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본력 확보 수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방안에 비추어 볼 때, 재무안정성 관리측면 뿐만 아니라 영업기반 확보 측면에서도 자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건전성 지표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도 하방압력 완화를 위한 계열의 재무적 지원이 신용도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② **사업장 정리현황과 리스크관리 수준:** 신용평가 과정에서 기발생한 재무부담 수준만이 아니라 KIS Stress Test를 통해 잠재적인 재무부담 수준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재무구조 개선은 신탁계정대 회수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장기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시행사와의 협의 및 내부적 손실 결의를 통한 할인분양 등 구체적인 정리노력이 필요하다.
- ③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 여부:** 산업환경, 수주실적 및 경쟁현황에 비추어 볼 때, 수익창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시장지위 하락, 사업기반 약화가 나타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경기 저하로 단기간 내 수주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리츠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수입원 확보를 통해 부동산 경기 민감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업체별 사업포트폴리오 구성과 수주 역량에 따라 실적대응력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Appendix.

금융계열 신탁사 2025년 3분기(누적) 잠정실적

(단위: 억원)

구분	KB	하나	신한	우리	교보	한투	대신	신영	합계
총전영업순수익	1,299	1,047	662	612	643	481	369	258	5,370
(-)대손비용	1,345	301	188	2,183	1,105	302	82	78	5,582
영업순수익	-46	746	474	-1,571	-462	179	287	181	-213
(-)판매비와관리비	246	255	244	275	252	174	202	181	1,828
영업이익	-292	491	230	-1,846	-714	5	85	-0	-2,041

일반계열 신탁사 2025년 3분기(누적) 잠정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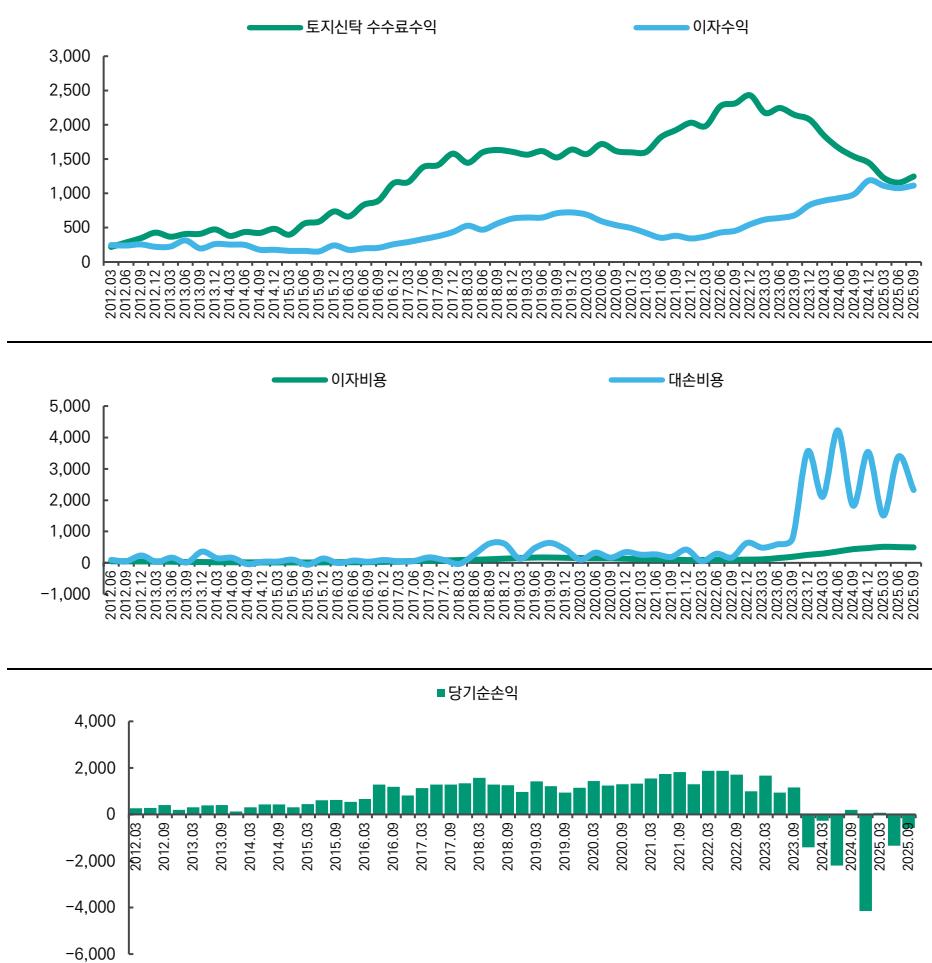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한토신	한자신	코람코	대토신	코리아	무궁화	합계
총전영업순수익	1,103	831	417	704	417	386	3,857
(-)대손비용	266	391	316	374	316	293	1,957
영업순수익	836	440	100	330	100	93	1,901
(-)판매비와관리비	543	281	239	250	239	305	1,857
영업이익	294	160	-139	80	-139	-212	43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신용평가

부동산신탁산업 주요 계정 추이(2012.03~2025.09 기준)

(단위: 억원)



주1) 14개 부동산신탁사 각 분기 합산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주2) 대손비용: 대출채권관련이익(손실)+총당금전입액(환입액)+기타대손상각비(순액) 기준(실제 비용성격이 대손비용 또는 총당부채

전입 항목에 해당하거나, 해당 계정을 기타영업비용(기타) 등 다른 계정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조정하지 않음[미반영])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기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원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센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센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당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재포장,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